

광주 업무·상업시설 경매시장 ‘찬바람’

부동산 경기침체·자영업 경기 불황 여파 올 1월 낙찰가율, 전달 보다 31% P 하락 합평 월야면 답 ‘전국 최다 응찰자 물건’

새해 들어 광주지역 업무·상업시설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전달 보다 30%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평균 응찰자수도 크게 줄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자영업 경기 불황까지 겹쳤기 때문에 풀이 된다. 이런 가운데 합평군 월야면 소재 답은 6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461%인 2억5천10만원에 낙찰, 1월 법원경매 최다응찰자 물건이 돼 주목을 받았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내놓은 ‘2019년 1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업무·상업시설 경매는

40건이 진행돼 1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2.5%에 그쳤다. 특히 낙찰가율은 전달(80.9%)보다 31.0% 포인트 하락한 49.9%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도 전달(5.2명) 보다 1.3명 줄어든 3.9명을 나타냈다.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근린시설이 3회 유찰 끝에 감정가의 43%인 81억1천530만원에 낙찰되면서 1월 광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지만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 하락의 주 원인이 됐다. 토지 경매는 24건 중 12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달(86.1%) 보다 35.0%p 상승한 125.1%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전달(3.3명)보다 1.0명



합평군 월야면 소재 답(좌)은 6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461%인 2억5천10만원에 낙찰돼 1월 법원경매 최다응찰자 물건이 됐다.

늘어난 4.3명이다. 지난달 80%대로 떨어졌던 광주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이달 들어 소폭 반등한 93.2%를 기록했다. 지난달 광주 주거시설 경매는 125건이 진행돼 83건 낙찰됐다. 낙찰률 66.4%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수는 전달(4.1명)보다 1.9명 늘어난 6.0명이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84.1㎡ 아파트에 2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102%인 1억9천900만원에 낙찰

돼 1월 광주 최다응찰자를 기록했다. 광주구 월계동 소재 59.9㎡ 아파트와 남구 방림동 소재 84.9㎡ 아파트에 각각 21명, 20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99%와 96%인 1억3천300만원, 3억88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전남 토지 경매는 522건이 진행돼 이중 251건이 낙찰돼 낙찰률 48.1%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달(107.8%) 보다 15.0%p 하락한 92.8%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전달과 동일한 3.0명이다. 눈길을 끄는 사례는 합평군 월야면 소재 1천355㎡ 답(畓) 경매에 6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461%인 2억5천10만원에 낙찰된 것이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잠재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경매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새해 시작부터 경매시장의 활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저조한 낙찰률이 지속되면서 유찰된 건수가 쌓여 진행건수는 증가하고, 낙찰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수출 초보기업 경쟁력 높인다

광주본부세관, YES FTA 컨설팅사업 설명회…오는 28일까지 신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 및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13일 광주정부 지방합동청사에서 ‘2019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전문 FTA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최초 수출예정 및 수출초보 기업을 우선 지원해 FTA 활용에서 통관 및 환급까지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는 수출기업 지원 사업이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광주본부세관과 광주·전남 코트라지원단 등 수출지원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 지역 내 수출이 임

박한 30여 내수기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FTA활용종합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 업체가 필요한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광주세관은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석호기자 haita2000@srb.co.kr

광주 고용지표 악화… 실업률 5% 육박

호남통계청 ‘2019 1월 고용동향’, 전남은 호전

광주 지역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5%에 육박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19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취업자는 7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4천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광주 취업자수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3천명(4.5%)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5천명(4.3%)이 각각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만1천명(-1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천명(-8.6%) ▲건설업 1천명(-1.2%)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3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천명(60.9%)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것

로 나타났다. 광주 실업률은 전국 평균(4.5%)을 상회했으며 ▲대전(5.8%) ▲울산(5.4%) ▲서울(5.1%)에 이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전남 지역 지난달 각종 고용지표는 호전됐다. 취업자는 94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천명(1.4%)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는 건설업 1만4천명(2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만3천명(4.5%)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만4천명(-7.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3천명(-3.5%) 감소했다. 실업자는 2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명(-25.6%) 감소했고,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해 충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혼수 준비도 ‘가치소비’ 대형·고급화 추세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디지털 가전 전문관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혼수 가전 상담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혼수 장만에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보다는 금액에 관계없이 심리적 만족을 추가하는 가치소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중요한 소비기준으로 떠오르며 대형가전 혼수품들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미세먼지·기념일... 2월 가전 新 성수기 등극

광주 이마트, 가전매출 42.7% 신장...구성비도 10% 증가 세탁기 54.9%·청소기 38.7%·컴퓨터 12.3% 늘며 특수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와 명절, 각종 기념일에 힘입어 2월이 새로운 가전 성수기로 등극했다. 건강 관련 생활가전은 물론 선물하기에 좋은 디지털 가전까지 최근 몇 년새 꾸준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2월까지 현재 가전 판매 신장율과 구성비 비율이 해마다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동안 2월 가전 매출은 42.7% 신장했으며 1년 중 2월 가전매출 구성비가 1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평월보다 영업일수가 2~3일 적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입학 선물과 집단장 등 시즌성 이슈와 올 겨울철 미세먼지 증가로 관련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형가전은 세탁기,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순으로 많이 팔렸으며, 소형가전은 청소기와 안마기, 디지털 가전은 컴퓨터와 게임기 순으로 인기였다. 대형가전은 세탁기 54.9%, 건조기 35.5%, 스타일러 23.1% 순으로 매출이 신장했다. 특히 올 겨울은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자주 많은 양의 세탁을 하는 관계로 모터힘이 큰 14kg 이상 대형제품이 대세다. 1인가구와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작은빨래량과 자주 돌려야 하는 여건상 세컨드세탁기 부속인 ‘투인원’ (2 in 1) 모델이 인기다. 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와 건조기·의류 스타일러도 필수 가전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소형가전은 추위와 미세먼지가 실내생활이 증가하면서 청소기와 건강관련가전제품이 인기며 청소기 38.7%, 안마기 31.9%

안마의자 25.7% 순으로 신장했다. 핸드 청소기는 1인 가구 비중이 증가와 더불어 번거로운 진공청소기 사용이나 물걸레를 대신해 먼지를 제거하는 간편함으로 인기가. 과거 구색에 그치던 로봇청소기가 최근 급속한 기술 발달이 이뤄지고 실용성, 작별이 가정들이 늘면서 핵심 상품군으로 떠올랐다. 로봇청소기는 정밀 센서가 탑재돼 청소하기 까다로운 구석이나 모서리 부분까지 깨끗이 청소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간단히 조작가능해 최고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안마기와 안마의자의 경우 40~50대 이상 효도선물과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부층이 찾는 상품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점차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마트 내 안마의자 매출 비중을 연례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으로 30대의 매출 비중은 각 16.5%를 차지했으나, 2017년도에는 27.2%로 10%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9.4% 차지하며 젊은층에서도 안마의자와 안마기를 찾는 수요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가전의 경우 여가증가로 영상관련 가전제품이 인기며 컴퓨터 15.3%, 게임기 10.1% 순으로 신장했다. 노트북은 인터넷 강의를 보며 필기나 간단한 문서작업을 하며 공부할 수 있으며 고화질의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졸업·입학 선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꾸준한 인기 가전제품이다. 게임기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등에 전용 게임기를 연결해 작동하는 콘솔게임기인 PS(플레이스테이션)가 인기다. 성인들도 어린시절 슬레머 게임을 즐겼던 순수함과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게임으로 기본전환과 여가용으로 인기며 ‘4K 화질’과 고성능으로 무장한 게임 신모델들의 등장과 ‘몬스터헌터’, ‘젤다의 전설’ 등 해외 인기 타이틀이 한글버전으로 출시되면서 콘솔게임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마트 상무점 장원중 점장은 “보통 영업일수가 작은 2월에는 평월 대비 매출규모가 작지만 가전제품에서만은 2월은 선물과 계절적 이슈로 특수를 누리는 달이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에어서울, 日 시즈오카 노선 풍성한 경품

3-4월 항공권 구매 고객에 현지 숙박·교통 무료 이용권 등 혜택 풍성

에어서울이 시즈오카 노선 구매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 상당의 종합 여행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에어서울은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인천-시즈오카 노선 왕복 항공권(3~4월) 구매자 500명에게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과 교통, 쇼핑, 음식 등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한다. 경품은 8천엔(8만1천원) 시즈오카 현지 호텔 숙박권(10명), 일본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3천엔(3만4천원) 백화점 상품권(50명)을 비롯해 시즈오카공항과 후지야마역을 왕복할 수 있는 공항버스 이용권(300명) 등이다. 또 후지산을 중심으로 시즈오카 지역의 관광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4천500

엔(4만5천600원) ‘JR 시즈오카 미니패스’ (10명), 5천엔(5만6천700원) 시즈오카 택시 이용권(30명) 그리고 시즈오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현지 정통 맛집, ‘사와야카 함박 스테이크’ 식사권(100명)도 포함돼 있다. 에어서울은 시즈오카 노선 구매자 중 5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기간 중 에어서울 홈페이지에서 3-4월 인천-시즈오카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에어서울 회원 누구나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 당첨자는 오는 27일과 3월 21일 에어서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서울 홈페이지(www.flyair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광주·전남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오는 20일까지 광주 65명·전남 50명
만 39세 이하 혁신적인 청년CEO 양성

성공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9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또는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시제품제작, 해외진출, 투자

등 사업화 전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1억원의 사업비도 지원된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나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경력자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광주 65명, 전남 50명이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1년 동안 ▲총 사업

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 ▲사무공간과 제품 제작 관련 장비 등 창업 인프라 ▲전문가 코칭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은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판로, 기술개발자금, 해외진출 지원, 투자유치 등의 후속연계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지역내 유망한 청년창업자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각자의 꿈과 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행복 나눔 무료급식 봉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2일 광주 북구 전국천사무료급식소 광주우산공원우로급식소에서 ‘행복 나눔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지사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21명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말벗으로 함께하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또 무료급식소를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80만원 상당의 쌀과 음료도 후원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나눔활동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행복을 나누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ly2001@srb.co.kr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2일 광주 북구 전국천사무료급식소 광주우산공원우로급식소에서 ‘행복 나눔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